

● 등록·체크인·출결 / FIELD NOTES

체크인 대기열을 줄이려면 총인원 대신 도착 곡선을 보세요

15분 도착량과 실제 처리시간으로 접수 라인을 계산하고, 명단 불일치와 재출력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콩콩프렌즈 · 약 3분 읽기 · 2026-10-28 업데이트

운영 상황 예시

개회 15분 전, 로비에 버스 두 대의 참가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QR은 금방 읽히는데 명찰을 건네는 손이 바쁩니다. 한쪽에서는 “신청했는데 이름이 없어요”라는 문의가 이어집니다. 이 가상 장면에서 먼저 볼 것은 하루 총인원보다 바로 그 15분의 도착량입니다.

이 글에서 가져갈 것

픽크 처리량 계산과 예외 데스크의 전환 기준을 가져갑니다.

이런 행사에: 컨퍼런스 · 포럼 · 설명회 · 고객초청행사 · 전시회 · 박람회 · 엑스포

접수대가 모자란 걸까요, 한꺼번에 도착한 걸까요?

등록자 1,000명이라는 숫자만으로 등록데스크 수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인원이라도 셔틀 도착 직후에 몰리는 행사와 전시장을 천천히 찾는 행사의 로비 풍경은 다르니까요. 큐시트 옆에 5분 또는 15분 단위 도착 예상표를 놓아 보세요. 셔틀, 주차 동선, VIP 이동, 개회 시간을 겹쳐 보면 집중 구간을 가정하기 쉬워집니다.

전년도 기록이 없다면 예상치라고 적어 두고 당일 실측으로 고칩니다. 초청 행사는 RSVP 회신과 실제 입장도 따로 봅니다. “오신다”는 응답이 언제 도착하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으니까요.

QR을 읽는 시간 뒤에도 일이 남습니다

스톱워치는 스캔 직전에만 켜지 말고, 참가자가 QR을 찾을 때부터 다음 참가자가 설 때까지 돌려 보세요. 서버 응답, 프린터 출력, 명찰과 목걸이 전달이 모두 한 라인의 처리시간에 들어갑니다. 이름 검색 건은 정상 QR 건과 나눠 재야 병목이 보입니다.

계산을 위한 가정으로, 15분에 300명이 오고 한 명당 20초가 걸리며 가용률이 80%라면 한 라인은 $900 \div 20 \times 0.8 = 36$ 명을 처리합니다. $300 \div 36$ 을 올림하면 9개 라인입니다. 이 숫자는 장비 성능이나 실제 고객 결과가 아닙니다. 프린터를 공유하는지, 공간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넣어 리허설에서 다시 확인할 출발점입니다.

라인 수 = 올림(픽크 도착 인원 $\times$ 실측 처리초 / (픽크 구간초 $\times$ 가용률)). 이 산식은 구간 내 처리량 점검용이며 개인별 대기시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단을 찾는 동안 뒤의 줄까지 세우지 않으려면

명단 불일치를 해결하는 일도 중요하고, 이미 확인된 참가자를 입장시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 라인에서 어디까지 확인하고 언제 예외 데스크로 안내할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을 권합니다. 아래 표에 담당자 이름까지 채워 보세요.

상황	정상 라인에서 할 일	넘길 곳
유효 QR·등록정보 일치	확인 후 명찰 전달	정상 퇴장 동선
QR 미소지·이름 검색 지연	정해 둔 시간 내 확인이 안 되면 안내	유인 확인 데스크
등록정보 수정·중복 결제 의심	현장에서 임의 수정·결제 판단을 하지 않음	승인 권한을 가진 사무국
기입장·명찰 재출력	입장 기록과 출력 이력을 구분	재출력 담당자

다음 행사에 남길 것은 최고 속도보다 피크 기록입니다

리허설 명단에는 정상 QR만 넣지 말고 취소자, 동명이인, 기입장자와 재출력 요청도 섞어 보세요. 예외 건을 어느 순간 넘길지 스태프가 같은 말로 안내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행사가 끝나면 피크 구간의 도착 수, 실제 처리 수, 예외 유형을 남겨 주세요. 다음 발주 때 “지난번엔 바빴어요”보다 어느 구간에서 무엇이 밀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등록대별 전원·망·프린터 공유 구간을 도면에 표시
- 긴급 검색·재출력 권한과 인계 담당자 지정
- 피크 구간 도착 수·처리 수·줄 길이를 같은 시각에 기록